

다문화사회와 통일교의 종교교육

문 선 영

선문대학교

〈요 약〉

다문화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다. 다문화현상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민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모든 문화집단의 구성원이 동질적인 문화요소만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는 거주 이주민과 함께 그들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도 함께 이입되고 있기 때문에 다종교사회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종교 간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종교교육은 다문화사회가 심화시키는 다종교현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사회의 각 종교집단에게 다(多)종교에 대한 이해와 종교 간의 평화를 실천하는 종교교육을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통일교 또한 피할 수 없는 종교교육의 현실이다.

본 논문은 다문화사회의 다문화교육이 문화다양성교육이라면, 다문화사회의 종교교육은 다종교교육, 곧 종교다양성교육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종교다양성교육은 다종교이해교육과 종교평화실천교육으로 구분된다. 다종교이해교육은 종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차원이 강조된다면, 종교평화실천교육은 다종교에 대한 이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한 윤리적 자세와 태도를 실천하는 차원이 강조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사회의 종교교육을 이해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일교의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핵심 주제어: 다문화사회, 다종교사회, 종교교육, 통일교, 종교다양성

I. 시작하며

한국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한마디로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다. 이러한 다문화현상은 주로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등과 같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민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한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가 증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현상과도 분리될 수는 없다.¹⁾ 이는 모든 문화집단의 구성원이 동질적인 문화요소만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단일민족, 단일문화로 구성된 한국사회라는 뿌리 깊은 한국인의 의식은 이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²⁾ 또한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은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 자본, 사람의 흐름과 함께 문화 간 접촉을 심화시켜나가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시킨다.

다문화사회는 한편 다종교사회의 심화를 동시에 내포한다. 왜냐하면 거주 이주민과 함께 그들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도 함께 이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의 구성요소, 곧 문화의 다양성을 초래하는 변수 중 하나인 종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문화사회는 다종교사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종교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시대가 됨으로써 다종교현상이 더욱 심화되어간다.³⁾ 따라서 종교 간 갈등이 더 빈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종교 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희망도 비례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사회에서 종교는 과연 “화합의 꽃인가 분쟁의 씨앗인가”⁴⁾라는 물음에 적어도 종교교육은 화합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문화사회가 심화시키는 다종교현상은 한국사회의 각 종교집단에게 다(多)종교에 대한 이해와 종교 간의 평화를 실천하는 종교교육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 또한 피할 수 없는 종교교육의 현실이다.⁵⁾ 이에 본 논문은 다문화사회의 종교교육을 종교다양

1) 구정화·박윤경·설규주, 『다문화교육 이해』(서울: 동문사, 2009), 16쪽.

2) 한국인의 단일민족의식은 과학적으로 허구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DNA를 분석한 결과 유전학적으로 한 계통에 의한 단일민족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 박기현,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서울: 역사의아침, 2007), 228-231쪽.

3) 특별히 이주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무슬림의 증가는 한국의 종교 지형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슬람 성원(Masjid)과 센터들이 설립되고 있다. 1964년에 발족된 한국이슬람교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의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기도 한다. 엄한진, 『한국사회 이주민 종교공동체의 실태와 성격』 『종교문화연구』 14(오산: 한신인문학연구소, 2010), 1-43쪽; 황병하, 『다문화 사회와 종교: 이슬람 종교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 『다문화 사회의 이해』(서울: 도서출판 동녘, 2008), 370쪽.

4) A. C. 그레일링, *Ideas that Matter*, 윤길순 역, 『다음 세상의 교양을 위한 새 인문학 사전』(서울: 웅진씽크빅, 2010), 130쪽.

5) 통일교는 1954년 5월 1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The Holy Spirit Association for the Unification of World Christianity)라는 공식 명칭으로 교단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1997년 4월 10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으로 교단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현재 교단 내부에서는 통일교라는 약칭의 교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일교의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다문화사회와 종교교육

1. 다문화사회와 문화다양성교육

다문화사회를 뒷받침하는 이념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이다.⁶⁾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안에서 소수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없애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⁷⁾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나 국가 안에 복수의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각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나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을 관리하는 문화정책을 세우는 이념이 된다. 이는 다양한 소수의 문화를 주류 문화 속에 통합시킴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 문화에 융해되도록 하는 동화주의(assimilationism)와는 구분된다. 다문화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 언어, 종교, 생활양식,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멸시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더욱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고양된 사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화주의에 비하여 이질적 집단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다문화교육은 한마디로 문화다양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 문화의 다양성을 교육한다는 것은 자문화중심주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문화중심주의에 의한 문화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교육 곧 다문화교육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계화에 따른 외국 문화와의 소통과 비판적 수용을 통

6) 다문화주의는 현상적, 전략적, 규범적 측면 등 다양한 범주와 수준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다(多)다문화주의”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개념 규정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구정화·박윤경·설규주, 앞의 책, 23쪽.

7)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양서원, 2009), 27쪽.

8) 다문화교육은 교육의 대상, 목표,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들이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다루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교육의 형태와 범주는 다양하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종족과 민족의 특성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 다민족교육, 문화와 인종에 대한 반편견교육,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상태 극복을 위한 평화교육, 세계의 상호 의존성 이해증진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등과 연계되어져 있으며 강조점에 따라 그 정의에 차이가 있다. 최일·김병석·안정희,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학지사, 2010), 51-53쪽.

해 문화적 열등감과 배타성을 극복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문화의 다양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⁹⁾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¹⁰⁾ 무엇보다도 첫째,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화를 들여다보게 하여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다문화교육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을 추구한다. 이러한 존중을 통해 교사는 문화적 관용을 가르치게 되고 학습자는 다양한 문화와 공존하는 미덕을 배우게 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화적으로 편협한 상태를 극복하도록 한다.

둘째,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지나친 자민족·자문화중심주의에 의한 교육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다. 한 사회나 국가의 교육과정이 대개의 경우 권력과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는 주류 집단의 문화를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수 집단의 학습자는 그들의 문화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시각과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 때문에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셋째,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모든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수 집단의 학습자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소외감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주류 사회에 적응하면서 생활하도록 주류 문화의 언어 등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소수 인종, 민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학교와 주류 사회에 동화되어 성공하기 위해 자신들의 민족적,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여전히 정치적,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세계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문화적 소양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가 지닌 배타성의 한계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¹¹⁾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다양성교육은 자민족·자문화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는 다름에 대한 무지와 편견, 차별과 배제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타민족·타문화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9)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편, 앞의 책, 46-47쪽.

10) James A. Banks,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모경환 외 역, 『다문화교육 입문』(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8), 2-7쪽 참조.

11) 자신의 문화적 한계를 벗기 위해서는 초문화적 시민성과 시민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James A. Banks,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김용신·김형기 역, 『다문화 시민교육론』(서울: 교육과학사, 2008), 35-36쪽; 허영식,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서울: 강현출판사, 2010), 63-77쪽 참조.

2. 다종교사회와 종교다양성교육

다문화사회는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다종교사회이다. 다문화사회의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라고 하는 종교다원화 현상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념은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라고 할 수 있다.¹²⁾ 종교다원주의는 세계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 간의 거리를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종교적 다양성(diversity)과 다원성(plurality) 속에서 종교다원주의는 자신의 신앙만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여 타인의 신앙에 대한 조소와 배타성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특정 종교인으로 하여금 타종교인을 자신과 같이 지성적이고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한다.¹³⁾ 따라서 “각 종교의 다양성과 정당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는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세계에서 최적의 태도일 것이다.”¹⁴⁾

그렇다면 다문화사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토대로 한 종교교육은 종교의 다양성 교육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사회의 다종교현상은 다종교교육의 필요성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종교교육은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문화다양성 교육인 것처럼 종교다양성교육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종교다양성을 가르치는 다종교교육의 목적은 문화다양성을 가르치는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다종교교육의 목적은 첫째, 개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종교의 관점을 배우고 이를 통해서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를 들여다봄으로써 종교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다종교교육은 종교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통해 여러 종교에 대한 존중을 추구한다. 이러한 존중을 통해 교사는 종교적 관용을 가르치게 되고 학습자가 다양한 종교와 공존하는 미덕을 배우게 한다. 따라서 다종교교육은 종교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종교적으로 편협한 상태를 극복하도록 한다.

둘째, 다종교교육의 목적은 지나친 자종교중심주의에 의한 교육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다. 지나친 자종교중심주의는 타종교문화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낳아 타종교문화를 적대적이며 이질적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주류 종교가 사회 속에 존재한다면 주류 종교집단에 의한 소수 종교집단에 대한 편견을 교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종교적 경쟁과 갈등을 통해서 폭력이 자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자종교중심적인 종교교육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셋째, 다종교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종교집단이 그들의 종교적 특성 때문에 겪을 수 있

12) 한일철, 『종교다원주의의 유형』(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40-57쪽 참조.

13) 박종천, 『종교다원주의와 신학의 탈서구화』, 한국기독교학회 편, 『종교다원주의와 신학적 과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26-127쪽.

14)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5), 95쪽.

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학교와 주류 사회에 동화되어 성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종교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다종교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세계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종교 간 공존의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종교교육은 학습자 가운데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배타성의 한계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¹⁵⁾ 더 나아가 사회의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간 평화를 실천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르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의 종교다양성교육은 지나친 자종교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는 다름에 대한 무지와 편견, 차별과 배제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데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종교다양성교육, 곧 다종교교육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의 종교교육은 ‘다종교이해교육’과 ‘종교평화실천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다종교이해교육은 종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차원이 강조된다면, 종교평화실천교육은 다종교에 대한 이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인들이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한 윤리적 자세와 태도를 실천하는 차원이 강조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가 ‘이해에 초점을 둔 교육’이라면 후자는 ‘실천에 초점을 둔 교육’이다. 단순히 종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만으로 종교 간의 평화가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적극적인 종교평화실현을 위한 실천교육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이 다문화사회에서의 종교교육의 방향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의 종교교육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다문화사회와 통일교의 종교교육

1. 통일교의 종교다원주의 이해

통일교는 다문화사회의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통일교는 종교다원화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통일교는 과학과 구별된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하나의 방편으로써 종교를 이해한다.¹⁶⁾ 통일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고 있으며 이를

15) 자신의 종교적 한계를 벗기 위해서는 종교적 보편윤리를 가르치고 종교 간 평화를 가르치는 다종교교육이 필요하다. 한스 쿡, *Projekt Weltethos*, 안명옥 역, 『세계윤리구상』(왜관: 분도출판사, 1992), 130-135쪽; Hans Küng (ed.), *Yes to a Global Ethic*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1996), pp.7-8.

1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서울: 성화출판사, 1995), 4쪽.

바탕으로 모든 인류는 부모 하나님 아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이라는 인류가 족공동체를 강조한다.¹⁷⁾ 따라서 통일교는 부모로서의 하나님이 모든 자녀 인간이 내적인 진리를 찾아 창조본연의 인간본성을 회복하도록 인류 역사 속에서 종교를 통해 모든 인류를 이끌어 나오는 구원섭리, 곧 복귀(復歸)섭리를 주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¹⁸⁾

이러한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인류에게 그들의 환경과 문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내적인 무지를 극복하여 진리를 찾아 나오도록 이끌어 나왔다고 말한다.¹⁹⁾ 강을 보면 여러 지류가 합하여 하나의 강이 되어 대해(大海)로 흘러가듯이 궁극적으로 종교는 그 원인자인 하나의 줄기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본다.²⁰⁾ 따라서 “모든 종교의 목적은 동일하다”²¹⁾고 전제한다. 다시 말하면 통일교는 모든 종교를 진리에 이르는 방편으로 이해하고, 모든 종교의 출현은 역사 속에서 신의 섭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본다.²²⁾ 이와 같은 근거 하에 통일교는 신 중심적인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교도 역시 진리에 이르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통일교가 말하는 신의 창조이상인 참된 가정을 통한 인류대가족의 평화세계²³⁾를 구현하게 되면 통일교의 사명이 끝나고 종교로서의 통일교도 소멸되는 것이다.²⁴⁾ 통일교의 창교자는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종교의 궁극적인 사명은 세계평화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서 종교 간의 담을 헐고 여러 양태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의 전통을 존중하고 종교 간의 분쟁이나 충돌을 힘써 막을 것”, “모든 종교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며 세계에 봉사할 것”, “세계평화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종교 지도자가 참석하는 조직”을 발전시켜갈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종교도 자기 종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며 “세계평화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종교가 필요”없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현실세계에서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⁵⁾ 따라서 통일교는 타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우월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이러한 종교 이해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통일교의 세계본부교회인 천복궁(天福宮)

17) 위의 책, 13쪽, 111쪽, 135쪽, 141쪽; 통일교 편, 『평화신경』(서울: 성화출판사, 2009), 298쪽.

18)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위의 책, 214쪽.

19) 위의 책, 10쪽;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편, 『세계평화실현을 위한 종교연합운동』(서울: 성화출판사, 2002), 130쪽.

20)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편, 위의 책, 130쪽.

21)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앞의 책, 10쪽.

22)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편, 앞의 책, 285쪽.

23) “인종·문화·국경·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통일교 신앙공동체의 신념은 통일교의 결혼의식을 말하는 국제축복결혼(교차교체축복결혼)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인종과 민족, 국가 간의 역사적인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다. 통일교 편, 앞의 책, 23쪽, 159쪽, 298쪽.

24)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서울: 김영사, 2009), 324쪽.

25) 위의 책, 323-324쪽.

의 정성실, 곧 기도실에서 엿볼 수 있다. 이곳에는 종교의 4대 성인들을 함께 모시고 있으며 모든 종교인들에게 개방된 곳으로 통일교의 초종교 초종파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통일교의 종교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사회의 종교다양성교육이 통일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교리적 배경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통일교의 종교다양성교육

1) 다종교이해교육

통일교 교단 내에서 진행되는 종교교육은 『원리강론』을 중심한 기초적인 교리이해교육이 기본이 되고 있다. 『원리강론』은 통일교 교리를 뜻하는 ‘원리(原理)’에 대한 기본적인 골자를 담고 있다. 통일교 교리교육, 곧 원리교육은 구리에 소재한 교단의 중앙수련원에서 2박 3일, 4박 5일 등의 단기 원리수련회를 통해 꾸준히 진행되며 통일교의 참가정 구현과 같은 교리의 핵심 내용이 강의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리강론』 중심의 교리이해교육은 각 지역 교회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통일교 교단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원리교육에서 통일교의 종교관 등을 통해 다종교이해교육이 미흡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종교이해교육이 체계화되어 있다가나 특별한 교육과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 교회는 연령대에 따라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등을 위한 교재를 통해서 통일교 원리와 신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²⁶⁾ 통일교 교단 내의 중·고등부 교재를 보면 다종교이해교육보다는 우선 신앙교육중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²⁷⁾ 따라서 연령대에 맞는 다종교이해교육을 위한 교단 내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일교 교단 내의 종교교육은 훈독회(訓讀會)를 병행함으로써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훈독회는 주로 창교자의 말씀을 가정이나 신앙모임에서 함께 읽고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적 성장에 도움을 받는 수행의 과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²⁸⁾ 이와 같은 훈독회는 1997년 9월 창교자의 뜻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으며 2010년 1월 26일 통일교 신앙인이 훈독해야 할 8대 교재-교본이 선정되었다.²⁹⁾ 그 중 하나가 『세계경전』이다.³⁰⁾

26) 유치부에서 초등부 교재로는 『참 기쁜 말씀』, 『참 좋은 말씀』, 『참 깊은 말씀』, 『참 크신 말씀』, 『하나님 이야기』, 『원리 이야기』 등이 있으며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각각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다.

27) 고등부 교재로는 『심정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등이 있다.

28) 훈독회는 “통일교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행의 한 과정”으로 “불교수행 가운데 간경(看經)과 같은 의미와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 이재영, 『통합 종교교육론』(아산: 신문대학교 출판부, 2010), 233쪽.

29) 8대 교재-교본은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원리강론』, 『천성경』, 『평화신경』, 『가정맹세』,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세계경전』이다.

30) 세계경전편찬위원회 편, 『세계경전』(서울: 국제종교재단출판국, 1994).

창교자는 세계경전을 “청소년들에게 종교와 피부색과 문화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교육할 소중한 교

『세계경전』은 1991년 8월 1일 미국에서 영문으로 처음 출판되었다.³¹⁾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1994년 한국어 번역판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전』은 통일교인이 혼동함으로써 다른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종교교육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경전』은 1985년 통일교 주최 제1회 세계종교의회에서 창교자의 제안과 참석한 세계의 종교지도자들의 뜻을 모아 통일교의 국제종교재단을 중심으로 세계경전편찬 프로젝트가 수행된 결과다. 발간사에 나타난 『세계경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경전들은 종종 종교공동체의 진리, 윤리, 정체성의 핵심으로 작용한 반면, 공동체 사이의 배타주의와 분열의 요소로도 작용하였다. 우리의 세계가 지역과 문화 사이에 거의 교류가 없이 분리된 문화의 영역 속에서 나누어진 채로 남아 있는 한, 특정 경전들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문화, 민족, 종교로 나뉘었던 이전의 간격을 매워주고 있으며, 따라서 상호간에 상부상조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결국 각 종교는 타종교의 경전에서 구현된 진리의 영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경전은 모든 종교들에 내재하는 보편성을 강조하고, 영적으로 공유하는 광활한 영역이 존재함을 보여 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이런 시도는 특정 종교의 독특한 차별성과 특성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혼합주의를 조장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보다도 우리의 시각은 모든 종교가 공유하는 통찰과 전망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 요소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타종교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영적 기초를 전수받으며, 상호 협조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배경을 가진 종교인들이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며 함께 일할 수 없다면, 인간관계를 왜곡시키는 적대감이 제거될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질 것이다.”³²⁾

이처럼 『세계경전』은 종교 간의 공통성을 보여주고, 종교 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려는 뜻에서 출판되었다. 이를 통해서 첫째, 궁극적 존재의 동일성을 발견하고, 둘째,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자세를 지니며, 셋째,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 가치 있는 통찰력을 얻고, 넷째, 종교적 가치관의 보편성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인류의 화합을 기원한다.³³⁾ 『세계경전』은 종교 상호간에 공통 토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강조됨으로써, 종교간 적대감을 배제하고 평화를 위한 원동력이 되길 바라는 차원이 있다.

『세계경전』은 세계의 주요 종교 간에 공유되는 관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상호간에 이해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구성 체계를 지니고 있다. 주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과서”로 활용할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편, 『세계평화실현을 위한 종교연합운동』, 119-200쪽. 통일교 창교자의 가르침과 여러 종교 경전에 나타난 가르침의 이해를 도모하는 『세계경전Ⅱ』도 출판되었다: 세계경전편찬위원회 편, 『세계경전Ⅱ』(서울: 천주평화연합, 2009).

31) Andrew Wilson (ed.), *World Scripture: A Comparative Anthology of Sacred Texts* (New York: International Religious Foundation, 1991). 종교학자 니니안 스마트(Ninian Smart)는 세계의 종교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천사에 밝히고 있다.

32) 세계경전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vi쪽.

33) 세계경전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7쪽.

힌두교, 유교, 도교를 중심한 경전을 인용하며 유대교, 자이나교, 시크교, 신도 등의 경전 내용들도 소개되고 있다.³⁴⁾ 각 장별로 세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논의들이 세계의 경전에서는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발췌형식으로 담고 있다.³⁵⁾ 이와 같은 『세계경전』은 각 종교의 경전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고 있어 다종교이해교육의 교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³⁶⁾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각 종단의 경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전은 교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는 다양한 종교 상호간의 이해와 종교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서 『세계경전』을 편찬하였고 이를 다종교이해교육의 차원에서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훈독을 통하여 종교 간의 유사성을 인식하고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교는 종교 사이의 차이 때문에 각 종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가 가려져서는 안 되며, 종교인들은 종교의 차이를 관대하게 인정하고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³⁷⁾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통일교인을 위해 『세계경전』의 주장과 내용은 필수적이며 다종교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계경전』을 통한 종교교육도 교단 내에서 교인들이 교육적 체계와 과정을 통해 학습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종교이해교육을 위해 『세계경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전』의 취지는 현재 교단이 운영하는 종립학교의 종교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다.

통일교는 학교법인 선문학원을 통해서 종립학교를 운영한다.³⁸⁾ 선문학원에서 운영하는

34) 세계경전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7-10쪽.

35) 『세계경전』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부 궁극적 실재와 인간의 존재목적 1장 궁극적 실재 2장 신성한 법, 진리, 그리고 우주의 원리 3장 개인적 인생의 목적 4장 가정과 사회에서의 인생의 목적 5장 자연계에서의 인생의 목적 6장 사후의 삶과 영계 / 제2부 악, 죄, 그리고 인간의 타락 7장 인간 정황 8장 타락과 일탈 9장 주요 범죄 / 제3부 구원과 구세주 10장 구원-해방-깨달음 11장 창시자 / 제4부 종교적 삶 12장 인간의 책임과 신의 예정 13장 자기계발과 영적 성장 14장 신앙 15장 지혜 16장 예배 17장 봉헌과 희생 18장 자기부정과 극기 19장 남을 위한 삶 / 제5부 섭리, 사회, 그리고 하늘 나라 20장 훌륭한 정치와 사회복지 21장 종말론과 구세의 희망.

통일교가 출판한 『세계경전』과 차이는 있으나 경전을 통한 세계종교 이해에 도움이 되는 관련 서적으로는 다음을 참조: 길희성 외 편,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1). 이 책은 그리스도교, 도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동학의 7개 종단을 다루고 있다. I. 궁극적 실재, II. 세계와 창조, III. 인간과 종교적 경험, IV. 종교수행, V. 종교의례, VI. 개인윤리와 이상적 삶, VII. 사회윤리와 이상적 사회, VIII. 창시자, IX. 종교공동체 9개 항목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종교의 성격상 생략되거나 변형된 항목도 있다.

36) 2010년 9월 11일 코란을 태우겠다고 발표한 미국의 개신교 테리 존스(Terry Jones) 목사가 2011년 3월 20일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한 보수적 성향을 지닌 교회에서 코란을 피고로 하는 모의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코란 화형식(코란 소각)을 거행하였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4월 1일 아프가니스탄 주재 유엔 직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슬람교의 가르침이며, 이슬람의 상징인 코란 훼손 사건은 4월 8일 이슬람 교인이 파키스탄의 한 교회 앞에서 성경을 찢으며 훼손하는 사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성경, 코란 훼손 전쟁>, <범종교신문>, 2011년 4월 15일자, 제10면.

37) 세계경전편찬위원회 편, 『세계경전Ⅱ』, 403쪽.

종립학교는 선문대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 선정관광고등학교, 선정중학교, 선화예술학교가 있다. 법인의 건학이념은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통일교 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은 제6차 종교 교육과정에 따라 1996년에 편찬된 종교교과서를 개정하여 『생활과 종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학교의 『생활과 종교』는 3권으로, 고등학교는 한권으로 편성되어 있다. 개정된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제7차 종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교육 목표와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 균형을 맞추어 다종교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특성상 통일교에 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교육과정 개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서 8개의 영역³⁹⁾ 가운데 3영역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는 다종교상황 속에서 각 종교의 공통점과 차이를 인식하고, 포용적 자세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통일교의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Ⅲ. 다양한 종교적 전통과 경전의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1. 진리에 이르는 다양한 길, 2. 궁극적 실재, 3. 양심과 도덕적 삶, 4. 남을 위하는 삶’이다. 다양한 종교의 전통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그 전통 상호간의 차이점을 현상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종교 상호간의 공통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통일교는 『세계경전』을 통한 종교 간의 공통 기반을 추구함으로써 연대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종립학교의 교과서에도 이러한 측면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종교 간의 차이 인식보다는 종교가 추구하는 보편적 정신, 가치를 더 강조하고 이를 보편적인 양심에 따른 도덕적 삶과 희생과 봉사하는 남을 위하는 삶으로 구분하여 중점을 두고 있다.⁴⁰⁾

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은 공통된 지침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다종교에 대한 교육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통일교의 중·고등학교 종교교육이 학습자들에게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지, 더 나아가 종교인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들여다봄으로써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지에 대한 평가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선문대학교의 교육목적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참된 인격을 도야하고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국가발전과 인류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인격자, 세계시민, 봉사하는 전문인 양성이다.⁴¹⁾ 이를 위한

38) 통일교와 관련된 학교법인으로는 학교법인 선문학원과 학교법인 청심학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법인 선문학원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39) I. 인간과 종교, II. 종교 현상의 이해, III.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IV.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V. 세계의 종교와 문화, VI. 한국의 종교와 문화, VII. 종교 공동체의 이해, VIII. 특정 종교의 사상과 전통.

40)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서울: 성화출판사, 2010), 60-77쪽.

41) 선문대학교 교목실 편, 『현대문화와 통일사상』(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4), 11쪽.

전인적 인간교육을 목표로 현재 특별교과목인 채플(Chapel)과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I · II’(Contemporary Cultural & Unification Thought I · II)를 인성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⁴²⁾ 현대문화와 통일사상은 2학점 단위로 두 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며,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현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통일사상적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해결방법을 고찰”⁴³⁾하는 내용을 다룬다. 통일사상은 통일교의 원리, 곧 교리와 창교자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체계화한 내용으로 통일교의 사상을 뜻한다.⁴⁴⁾

2004년 이전에는 통일교 교리서인 『원리강론』을 교재로 통일교 교리 중심의 ‘성서와 원리 I · II’(Bible and Divine Principle I · II) 교과목이 운영되었다. “성서를 통하여 본문이 갖고 있는 성서 본래의 의미와 현대적 해석을 찾아내고 성서의 주석방법과 이론을 고찰한다.”⁴⁵⁾는 입장에서 교육되어졌다. 왜냐하면 통일교는 기독교의 성서를 재해석하고 있는 기독교계 신종교이기 때문이다.⁴⁶⁾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되는 특정 종교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은 결국 본래 의도와는 달리 그 종교에 대한 반발심 내지 역효과를 불러오기 쉽다.”⁴⁷⁾ 이러한 점은 대부분의 종립대학들이 운영하는 필수교양으로서의 종교 관련 과목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선문대학교의 종교교육은 지나친 자종교중심주의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된 인격자 양성에 보다 초점을 맞춘 대학교육의 뜻을 살려 2004년부터 ‘성서와 원리 I · II’는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I · II’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재는 과목명과 동일한 『현대문화와 통일사상』이다. 5개 단원으로 구성되며 각 단원을 살펴보면 제1단원 건학이념 해설, 제2단원 진리에 이르는 길, 제3단원 인간과 사회, 제4단원 역사이해와 세계평화, 제5단원 설립자 문선명 선생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⁸⁾ 전체적인 교재 구성은 통일교의 사상을 중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통일교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제2단원 진리에 이르는 길은 통일교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세계종교와 민족종교를 소개함으로써 다종교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종교가 지닌 경전의 정신을 양심에 따라 사는 삶과 위하여 사는 삶으로 구분함으로써 중 ·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 교과서와 동일하게 종교의 다양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통성을 지향하고 있다.⁴⁹⁾

42) 선문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편, 『선문대학교 요람 2007-2008』(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7), 127쪽.

43) 위의 책, 571쪽.

44)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서울: 성화출판사, 1994) 참조.

45) 선문대학교 출판부 편, 『선문대학교 요람 1994』(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1994), 126쪽.

46) Christopher Partridge (ed.), *New religions A Guide New Religious Movements, Sects and Alternative Spirituali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71-74.

47) 윤용복,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육』, 강돈구 외, 『종교교육 비교연구』(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67쪽.

48) 선문대학교 교목실 편, 앞의 책, 6-9쪽.

49) 선문대학교 교목실 편, 앞의 책, 44-53쪽.

궁극적으로 선문대학교의 “종교교육은 사랑의 실천교육”이라고 한다.⁵⁰⁾ 채플은 학기 중에 열리는 예배시간으로 경건한 생활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며,⁵¹⁾ “성숙된 인격을 도야하도록 돕고자 한다.”⁵²⁾ 채플은 2010년부터 6학기 이수에서 4학기 이수로 변경되었으며, 1주일에 1회 출석으로 그 결과는 pass와 non pass로 구분된다. 현재 종교과목인 채플이 초종교, 초종파적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채플시간에 천도교, 원불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등의 외부 타종교 성직자들을 초빙하여 종교 간의 화합과 다종교이해를 도모하고 있다.⁵³⁾ 또한 선문대학교 교목실 홈페이지에서는 채플이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을 직접 초빙하여 다원주의 시대에 맞게 초종교, 초종파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⁵⁴⁾ 선문대학교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종교이해의 폭을 점차 넓혀나감으로써 종교적 심성계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통일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적어도 통일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 개선에는 도움이 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교 외의 다른 종교들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종교인들에게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가치를 얼마나 일깨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2) 종교평화실천교육

다문화사회에서의 종교교육은 종교다양성교육, 곧 다종교교육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이를 다종교이해교육과 종교평화실천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종교평화실천교육은 종교적 갈등의 극복과 종교 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원의 실천교육을 말한다. 종교평화실천교육은 다종교이해교육만으로는 종교다양성교육, 곧 다종교교육의 목적이 온전하게 실현되기 어렵다는 반성에서 비롯하며 적어도 종교인에게는 종교 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종교교육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성찰에서 연유한다. 왜냐하면 종교평화는 다종교에 대한 지식적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상호 존중을 바탕한 실천적 삶이 뒷받침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종교에 대한 이해만으로 종교인들이 자신과 다른 종교를 존중하며 관용과 배려를 실천하고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적 이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통일교의 종교교육에서 종교평화실천교육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라고 본다. 통일교는 종교 간의 대화와 종교 간의 연합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그 결과물이기도 한 『세계경전』을 중심한 종교교육을 통해서 종교 간의 관용과 배

50) 선문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편, 『선문대학교 요람 2011-1012』(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1), 705쪽.

51) 선문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편, 『선문대학교 요람 2007-2008』, 571쪽.

52) 위의 책, 571쪽.

53) 이재석, 『종교연합운동사』(서울: 선학사, 2004), 522쪽.

54) <http://chaplain.sunmoon.ac.kr>

려가 실천되고 종교의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통일교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타종교에 대하여 열린 자세와 태도를 지향해 나가고, 교단 내에서 종교평화실천교육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종교 간의 갈등이 가시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평화실천교육의 체계나 그 과정의 구축을 강조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종교평화실현은 종교 간의 연대와 협력적인 상호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평화실천교육도 종단 간의 협력적인 작업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통일교내에서 구체적인 교육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였으나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윤리적인 자세와 태도를 실천하기 위한 운동과 노력은 있었다. 한국종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새천년종교윤리헌장’을 만들고 선포함으로써 구체적인 종교인의 삶의 지표를 제시하였다.⁵⁵⁾ ‘새천년종교인윤리헌장’ 선포 이후 종교인의 개인윤리, 종교 간 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 생명윤리, 경제윤리, 과학기술윤리, 문화윤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실천강령을 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종교평화실천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은 적이 있다. 나아가 2003년에 실천해야 할 ‘실천지표 2003’을 제정하고 각 회원종단은 실천과 교육을 추진한 바가 있다.⁵⁶⁾ 그러나 이후 매년 제정하고 실천하기로 한 실천지표가 중단되었으며 종교평화실천운동으로서의 ‘새천년종교인윤리헌장’ 운동도 멈추게 되었다. 또한 그에 입각한 종교평화실천교육도 체계화의 진전 없이 의의만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천년종교인윤리헌장’ 운동의 산과 역을 맡았던 통일교에서는 실천지표 등을 향후 종교평화실천교육의 지침과 내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아가 종교평화실천교육의 체계화된 교육과정의 수립도 모색해 나가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평화실천교육과 관련한 실천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종교 간 윤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오늘 이 땅의 종교인은

- 1) 종교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종교간 대화와 교류에 더욱 힘쓰자.
- 2) 종단 내의 어떤 차별이나 폭력도 단호하게 몰아내자.
- 3) 종교 간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자.
- 4) 교리적 배타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을 교육하자.
- 5)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타종교의 전통을 비방하지 말자.”⁵⁷⁾

55) 한국종교협의회는 모든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윤리관을 계발하여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종교인 윤리헌장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0년 1월 이사회의 결의와 10개 회원 종단의 승인 하에 연구에 착수 2000년 12월 15일 ‘새천년종교인윤리헌장’을 선포하였다. 새천년종교인윤리평화총연합, 『새천년종교인윤리헌장』(서울: 천지성지사, 2002) 참조.

56) 위의 책, 3-4쪽.

57) 위의 책, 68쪽.

IV. 마치면서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이 인간 존엄성을 토대로 한 문화다양성교육이라면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종교교육은 인간 존엄성을 토대로 한 종교다양성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나의 문화’와 ‘당신의 문화’는 경쟁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며 협력과 상생을 모색하는 ‘우리의 문화들’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다문화사회에서 ‘나의 종교’와 ‘당신의 종교’는 경쟁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며 협력과 상생을 모색하는 ‘우리의 종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다문화사회의 종교교육은 한국사회 현실에서 종교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종교집단의 교육적 태도와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종교집단은 다종교이해교육과 종교평화실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교 상호간에 우리의 종교들을 배울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배워나가며 평화적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종교는 생활을 통한 고유의 종교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중심의 다종교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집단 스스로가 지식중심의 종교교육을 넘어 체험을 통한 다종교이해에도 관심을 갖고 시도해 나갈 때 더 나은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통일교의 종교교육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종교다양성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2009.
- 구정화 · 박윤경 · 설규주. 『다문화교육 이해』. 서울: 동문사. 2009.
- 권순희 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2010.
- 그레일링, A. C. *Ideas that Matter*. 윤길순 역. 『다음 세상의 교양을 위한 새 인문학 사전』. 서울: 웅진씽크빅. 2010.
- 글레이저, 네이션. *We are all multiculturalists now*. 서종남 · 최현미 역.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09.
- 길희성 외 편.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1.
- 김선미 · 김영순. 『다문화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8.
- 김용신. 『다문화교육론 서설』.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 김은미 · 양옥경 · 이해영. 『다문화사회, 한국』. 파주: 나남. 2009.
- 마르티니엘로, 마르코.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2.
-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서울: 김영사. 2009.
-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편.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경진. 2010.
- 박기현.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 서울: 역사의아침. 2007.
- 박천웅. 『다문화교육의 탄생』. 안산: 국경없는 마을. 2009.
- 새천년종교인윤리평화총연합. 『새천년종교인윤리헌장』. 서울: 천지성지사. 2002.
- 선문대학교 출판부 편. 『선문대학교 요람 1998』.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1998.
- 선문대학교 교목실 편.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4.
- 선문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편. 『선문대학교 요람 2007-2008』.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7.
- _____. 『선문대학교 요람 2011-2012』.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1.
- 〈성경, 코란 훼손 전쟁〉. <범종교신문>. 2011년 4월 15일자.
- 세계경전편찬위원회 편. 『세계경전』. 서울: 국제종교재단출판국. 1994.
- _____. 『세계경전II』. 서울: 천주평화연합. 2009.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5.
- _____. 『중학교 생활과 종교 1, 2, 3』. 서울: 성화출판사. 2010.
- _____.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 서울: 성화출판사. 2010.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편. 『세계평화실현을 위한 종교연합운동』. 서울: 성화출판사. 2002.
- 안경식 외.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학지사. 2008.
- 엄한진. 「한국사회 이주민 종교공동체의 실태와 성격」. 『종교문화연구』 14. 오산: 한신인문학연구소. 2010.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7.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 『다문화 사회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동녘. 2008.
- 윤용복.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육」. 강돈구 외. 『종교교육 비교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

- 구원. 2009.
- 이재석. 『종교연합운동사』. 서울: 선학사. 2004.
- 이재영. 『통합종교교육론』.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0.
-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5.
- 전숙자 · 박은아 · 최윤정.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이해』. 서울: 도서출판 그린. 2009.
- 최일 · 김병석 · 안정희.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0.
- 퀼, 한스. *Projekt Weltethos*. 안명옥 역. 『세계윤리구상』.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통일교 편. 『평화신경』. 서울: 성화출판사. 2009.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4.
- 한명희 외.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2007.
- 허영식.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 서울: 강현출판사. 2010.
- 한국기독교교회회 편. 『종교다원주의와 신학적 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한일철. 『종교다원주의의 유형』.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 Wilson, Andrew (ed.). *World Scripture: A Comparative Anthology of Sacred Texts*. New York: International Religious Foundation. 1991.
- Sleeter, Christine E., Grant, Carl A.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문승호, 김영천, 정정훈 공역. 『다문화교육의 탐구: 다섯 가지 방법들, 6판』.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9.
- Partridge, Christopher (ed.). *New religions A Guide New Religious Movements, Sects and Alternative Spirituali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Küng, Hans (ed.). *Yes to a Global Ethic*.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1996.
- Banks, James A.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모경환 외 역.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8.
- James A. Banks.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김용신 · 김형기 역. 『다문화 시민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9.

원고접수 : 2011년 6월 20일 1차 심사 : 6월 28일 게재승인일 : 7월 11일

연구자소개 : 문선영

① 전공 : 신학 / 소속 : 선문대학교 조교수

② 관심영역 : 종교교육, 종교학

③ 주요논저 : 「어머니 메시아에 관한 연구—통일교의 메시아 이해를 중심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안시일(安侍日) 연구」, 「통일교 여성 이해와 그 현대적 함의」

④ E-mail : tcmsy@hanmail.net

Abstract

**Multi-cultural Society and Religious Education in
Unification Church**

Moon, Sunyoung

Sun Moon University

A multi-cultural society consists of cultural diversity. Such phenomenon stems from an increase in immigrant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nd means that not all constituents of cultural groups share the same cultural aspect. Such society intensifies a multi-religious society because immigrants and their own religions are introduced to the society. Therefore, a multi-cultural society paves the way for a frequent dispute among religions.

Religious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has no choice but to reflect the multi-religious phenomenon. Such situation calls for religious education that allows for understanding of diverse religions to Korean society's religious organizations and peace among religions. Unification Church, in this case, is no exception.

As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is equal to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this study understands that religious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is equivalent to multi-religion education, or religious diversity education. Religious diversity education is categorized into understanding diverse religion education and practicing religious peace education. Whereas the former is emphasized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religions, the latter is focused not only on understanding religions, but also on maintaining and practicing ethical stances and attitudes for the sake of peace among relig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 multi-cultural society's religious education in this vein and review the status and task of religious education in Unification Church.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Multi-religious Society, Religious Education, Unification Church, Religious Diversity